

# 고교생 '카셰어링 비극'

## 본인 확인 시스템 허술...광주서 차 빌려 교통사고 낸 10대 투신

광주의 한 고교생이 카셰어링(car sharing) 서비스를 이용해 차량을 빌려다다 교통사고를 낸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조사되면서 카셰어링 서비스의 허술한 본인확인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기존 렌터카 서비스와 달리 스마트폰 앱에 부모 등 제 3자 면허정보만 입력하고 결제하면 사람 접촉 없이 차량을 빌릴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청소년들의 교통사고가 잇따르는 상황에서 사고를 낸 청소년이 가족에게 꾸지람을 들을까 걱정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일어나면서다.

교통사고 초동수사에 나선 경찰관들이 학생 신병을 부모에게 인계하거나 조사 과정에 참여시켰다면 극단적 선택은 막을 수 있었다는 주장도 유족 측에서 나오고 있다.

◇본인확인 부실...청소년 잡는 카셰어링=지난 5일 오전 9시10분께 광주서 광산구 주거지 아파트 화단에서 승진 채 경비원에 의해 발견된 A(17)군의 투신 시체를 경찰은 전날 밤 10시께로 추정하고 있다. A군은 1시간여 전인 밤 9시께 광산구 월곡동의 한 도로에서 사고를 일으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친구들과 함께 카셰어링 서비스를 이용해 차량을 빌려타던 중 가

### “부모에게만 알렸어도...” 유족측, 경찰 조사 불만

벼운 접촉사고를 일으킨 후 얼마 안 돼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이다.

이와 관련, A군 학교 측과 경찰 일각에서는 카셰어링 서비스의 허술한 본인확인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뜯어고쳐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난해 12월 15일 고교생 B(17)군이 카셰어링으로 차를 빌려 무면허 운전 중 외제차를 잇따라 들이받는 사고를 냈고, 이보다 앞선 지난해 9월에도 광산구에서 고교 2학년 남학생이 같은 서비스를 이용해 운전대를 잡아 무면허 뺑소니 사고를 낸데 이어 A군 사망까지 부른 것이다. A군 학교 관계자는 “학교도 학생지도에 소홀함은 있었으나 운전 면허도 없는 학생들이 이렇게 손쉽게 차량을 손에 넣는 서비스가 과연 정상이나”면서 “부모님 운전면허 정보를 핸드폰 앱에 입력하고 결제해서 도로나 지정된 장소에 주차된 차량을 빌려다다 사고를 냈고, 끄고 왔다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하는데 이 제라도 허술한 본인확인 절차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 학부모에 학생 인계했다더라”=유족 측에선 “교통사고 현장에서 초동 조사를 벌였던 경찰관들이 조사 과정에 보호자를 참여시키지 않았고, 조사 후 아이를 부모에 인계하지도 않았다”며 경찰 조사에 불만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다.

숨진 A군의 범죄사실(무면허 운전)과 파손차량 변상 문제를 부모에 제때 알렸더라면 A군 혼자서 걱정을 하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은 막을 수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다.

유족 측 주장대로라면, 교통사고를 조사한 경찰이 경찰청 예규(제507호·소년업 무규칙)에서 정한 ‘비행소년에 대한 출석 요구나 조사를 할 때에는 지체없이 그 소년의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에게 연락해야 한다’고 규정을 준수했는지 여부도 논란이다.

경찰 관계자는 “A군이 이전에 친구 오토바이를 고장 내 수리비 문제로 집에서 말썽을 일으킨데다 그날 빌린 차로 사고를 일으키면서 꾸지람을 들을까봐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면서 “교통사고 조사 후 보호자 통지 의무와 관련해서도 A군 가족 명에 부분도 있어 자세한 언급은 곤란하다”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kwangju.co.kr

# 대인시장 이면도로 쓰레기 불법투기 수년째 방치

## 건축폐기물 수북히 쌓여 동구청 팔팔...주민 불편

광주시 동구 대인시장 인근 이면도로에 불법 투기된 쓰레기들이 수년째 방치된 채 쌓여있어 시장을 찾는 사람들은 물론 인근 주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대인동 198-17번지 10m 길이 도로에 방치된 쓰레기는 수년간 민원이 제기되어왔지만 관할인 동구청과 충장동 주민센터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 주민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다.

6일 동구청에 따르면, 이 도로는 국토해양부 소유로 오랫동안 관리가 되지 않는 바람에 몇 년 전부터는 인근 시장에서 나온 쓰레기와 건축폐기물이 버려지는 등 불법쓰레기장으로 변해버린 상태다. 인근 주민들과 시장에 찾아온 사람들은 쓰레기에서 나오는 악취와 비위생적인 환경에 혀를 내두를 정도다.

동구청은 지난해 12월 7일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자 50일이 지나서야 눈에 띄는 일반쓰레기들을 수거했다. 하지만, 수년간 높다랗게 쌓여있는 건축폐기물은 순도 내지 못했다.

시장상인 이경남(여·59)씨는 “음식물 쓰레기가 버려지는 등 악취가 심한데도 수년째 방치해두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현장 주변에 CCTV와 가로등을 설치하는 등 불법쓰레기를 막을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대인시장을 가끔 찾는다는 하미영(여·68)씨는 “시장에 오면 쓰레기가 쌓인 이면도로를 지나가야 하는데 불쾌감을 느



광주시 동구 대인시장 인근 도로에 수년간 불법 투기된 건축폐기물 등이 최근까지 쌓여있던 모습. 동구청은 최근 쌓여있던 쓰레기 일부를 치웠다. <독자 제공>

껴 되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적지 않다”며 “하루빨리 쓰레기가 치워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동구청 관계자는 “현재 예

산과 인원이 부족해 불법 투기된 쓰레기를 치우지 못하고 있지만, 늦어도 다음달 초까지는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한영기자 young@kwangju.co.kr

# 신협 지점장이 고객 투자금 44억원 가로채

## 목포경찰, 40대 구속

금융기관 지점장이 직위를 이용해 고객의 투자금 수십억원을 가로챘다.

목포경찰은 고객들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챘던 혐의(사기)로 목포지역 신협 모 지점의 전 지점장 김모(45)씨를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김씨는 지점장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8

월 피해자 A(44)씨에게 “알고 지내는 모 그룹 회장이 추진하는 사업에 투자하려고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고율의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25억원을 받아 가로챘던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또 같은 수법으로 또 다른 피해자 2명으로부터 각각 17억5000만원, 1억2000만원을 받아 챙기는 등 지난 1~9월 이들 3명으로부터 총 44억원을 가로챈 혐의다.

조사 결과, 김씨는 그룹 회장으로부터 300여원의 투자금을 확보해 뒤 빌려준 돈을 때일 일이 없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점장 신분으로 거액을 거래한 내역이 드러날까봐 이를 감추려고 10여개의 차명계좌를 사용해 돈을 입금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피해자 3명 이외에도 7~8명의 고객으로부터도 수익원을 더 투자받았다는 김씨의 진술에 따라 추가 피해자 확인에 나섰다. /목포=김병관기자 dss6116@

# “고수의 보장” 동료 속여 10억원 ‘꿀꺽’

## 광산경찰, 30대 영장 신청

중국 주식에 투자해 고소득을 보장해주겠다며 직장 동료들을 속여 10억원을 가로챈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광산경찰은 6일 10억원대 주식투자사기를 벌인 혐의(사기)로 임모(3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임씨는 지난 2015년 8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김모(30)씨 등 회사 동료와 지인 등 7명을 상대로 중국 부동산 기업 등에 중국 주식에 투자해 매월 투자금의 6~10%를

배당금으로 주겠다고 1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광주 하남 산단 자동차부품 생산업체에 근무하던 임씨는 “작은아버지가 증권회사 펀드매니저이자 주식방송에도 출연하는 전문가”라며 “중국 기업 주식에 투자해 나도 매월 수백만원의 수익금을 받고 있다”고 피해자들을 꾀어낸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주식전문가라는 작은아버지는 허구의 인물이었다.

임씨는 2015년 초에도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 주석에 투자했다가 큰 손실을 보았고 추가 투자비용을 마련할 목적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임씨는 동료들에게 적게는 1000만원대에서 많게는 2억원 이상까지 투자 명목으로 받은 뒤 비상장주식에 투자했다가 대부분 탕진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돈을 넘겨받고 얼마간 수익금을 수백만원씩 매일 지급하는 수법으로 동료들을 안심시키며 돈을 끌어모으는 수법을 썼다”면서 “높은 수익금을 내세워 투자를 권유할 경우 사기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투자 전 철저한 확인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kwangju.co.kr

# 박근혜 정권 중복몰이 공작정치 피해자 명예회복 나선다

## 광주 시민단체 ‘투쟁위 구성’

광주진보연대, 민주노동 등 시민·노동단체가 6일 ‘박근혜 중복몰이 공작정치 피해자 명예회복 투쟁위원회’ 구성을 선언했다.

단체는 이날 광주 국립 아시아문화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교조, 공무원노조, 통합진보당, 개성공단, 문화예술회관, 농민 등 박근혜 정권 중복몰이 피해 당사자가 모여 위원회를 구성했다”며 “공작정치 청산과 명예회복을 위해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참가자들은 이어 “1000만 촛불항쟁과 대통령 탄핵 절차가 진행되면서 국정농단 바탕에 치밀한 중복몰이, 공작정치 실체가 있었음이 밝혀졌다”며 “정권의 탄압과 폭력 피해자의 명예회복은 적폐청산의 출발이다”고 강조했다.

/김한영기자 young@kwangju.co.kr



## “약 끊으면 도벽 도져” 60대 여성 상습절도 탈미



○~약을 끊으면 도벽이 도져 옷·가방 등을 상습적으로 훔친 60대 여성이 절창형.

○~6일 여성경찰에 따르면 임모(여·64)씨는 지난해 7월부터 23일 사이 여수 중심가의 한 옷가게에서 주인이 보지 않을 틈을 타 물품을 들고 나오는 수법으로

총 5회에 걸쳐 패딩점퍼·핸드백 등 132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

○~임씨는 “당뇨병과 고혈압을 앓고 있는데 약기운이 떨어지면 물건 훔치는 욕구가 발생해 참기 힘들다”고 진술했는데, 경찰 조사 결과 절도 전과 11범으로 확인돼 예외를 수사 중이라고 설명.

/여수=김창희기자 chkim@

## 지오옥션 부동산 중개법인(주)

20년경력 조여사 010-6211-4585

## 경, 공매 컨설팅

### 경매 추천물건

- ★ [건물] 광주시 동구 금동 구시청사거리 남동측 토지 712.9㎡ 건물 1,545.04㎡ 감정가 2억3천1백 ▶ 최저가 14억9천2백
- ★ [건물] 광주시 서구 매월동 서부농수산물부근 남동측 토지 864.8㎡ 건물 1514.31㎡ 감정가 20억7천2백 ▶ 최저가 14억5천
- ★ [공장] 광주시 북구 일곡동 OB백주 광주공장 부근 토지 1872.59㎡ 건물 1540.1㎡ 감정가 13억7천2백 ▶ 최저가 9억6천
- ★ [공장] 광산구 옥동 평동초교 동측위치 평동 제1차 일반산업단지 토지 1652.6㎡ 건물 2547.76㎡ 감정가 11억1백 ▶ 최저가 7억7천1백
- ★ [건물] 목포시 석현동 가톨릭대학교 부근 병원건물 토지 12,096㎡ 건물 8,337㎡ 감정가 139억7천3백 ▶ 최저가 78억2천5백
- ★ [무인텔최적합] 화순군 도곡면 천암리 도곡온천관광단지내 포장도로점 토지 3,234.2㎡ 건물 4,280.8㎡ 감정가 37억8천7백 ▶ 최저가 12억4천1백
- ★ [건물] 장성군 삼서면 대곡리 요양병원 토지 11,546㎡ 건물 5,733.24㎡ 감정가 48억8천6백 ▶ 최저가 21억8천9백
- ★ [공장] 장성군 동화면 용정리 장성 백이사거리인근 공장지대 토지 9,178㎡ 건물 5,842㎡ 감정가 36억5천5백 ▶ 최저가 16억3천7백

### 투자 추천 물건

- ★ [토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최고의 투자가치 월수익 최상 (대기업 임대중) 토지 9,280㎡ 건축 2,885㎡ 매매가 170억
- ★ [토지] 나주시 봉향면 옥곡리 계획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 토지 23,147㎡ 매매가 평당10만
- ★ [토지] 나주시 노안면 장동리 계획관리지역 주택, 과수원 (물류창고, 공장적합) 토지 34,000㎡ 매매가 상당후 협의가
- ★ [토지] 북구 삼각동 31사단 정문 인근 전 1,326㎡ 1층일반주거지역 주위 식당생업중 투자적합
- ★ [토지] 제주도 서귀포시 강정마을인근 바다, 한라산조망, 펜션, 빌라 부지적합 토지 4,000㎡ 주택 28세대가능 상가 건물로 교환 원함
- ★ [토지] 전남 함평군 대동면 금곡리 대규모 펜션 카페 대지 15,668㎡ 건물 900㎡ 미래가치 우수 매매가 상당후 결정
- ★ [토지] 북구 화양동 무등산공원내 답 1,700㎡ 주말농장 및 농지원부가능 매매
- ★ [건물] 광주 서구 매월동 자동차매매단지옆 토지 5,359㎡ 건물 595.4㎡ 2층 공장 매매 평당2백5십
- ★ 광주근교 전원주택부지 다량보유

### 수익형 추천

- ★ [건물] 북구 신용동 첨단2지구 아파트 밀집지역 메인상권 4층 건물 대지 780㎡ 건물 1830㎡ 매매 48억(보5억3천 월2천2백 포함)
- ★ [건물] 서구 금호동 아파트 밀집지역 사우나,헬스 6층 건물 대지 1,896㎡ 건물 1,320㎡ 1층 점포다수 고수익형 매매 58억
- ★ [건물] 광산구 첨단 롯데마트부근 지하1~7층 요양병원 대지 1,350㎡ 건물1,192㎡ 임대안고도 가능 매매 60억(협의가)
- ★ [건물] 광산구 공항에서 송정역 대로변 지상 6층 병원건물 대지 958㎡ 건물 2,570.58㎡ 매매 35억
- ★ [건물] 광주 서구 생촌동 상무대로변 지하2층~지상10층 대지 777㎡ 건물 5,902㎡ 매매 55억
- ★ [건물] 광주 서구 풍암동 상업지구 대지 510㎡ 건물3,245㎡ 지상9층 병원빌딩 용 30억 보증금 2억5천 월2천8백만원 매매 50억
- ★ [건물] 광주 북구 용동동 양산사거리부근 대로변 메디컬센터 입점중 대지 929㎡ 건물 895㎡ 매매 63억
- ★ [건물] 광주 서구 풍암동 동부센트럴빌부근 코너 대지 298.9㎡ 건물 175.9㎡ 4층건물(용6억포함), 보증금 7천 월4백6십 매매 13억5천

공인중개사 장현준 010-3610-4039 배우면서 함께 일하실 공인중개사 구함 062-714-2258